

안전한 노동 환경, 우리가 만듭니다

고양시 노동안전지킴이



고양시노동권익센터
Goyang City Labor Rights Center

주소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39
세은빌딩 6층(화정동)
문의 ☎ 031-925-9092

왼쪽부터 고양시 노동안전지킴이 고석재, 강동철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4월 10일 고양시노동권익센터에서 출범한 '고양시 노동안전지킴이'가 바로 그들이다. 오늘도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제조 현장에 나서는 이들의 일과에 함께 해보았다.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

하나의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사항은 바로 '안전'이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대기업 현장 노동자에 비해 안전교육을 제공받을 기회가 적고,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해도 강력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잊혀질 만하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열악한 건설현장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동안전지킴이가 현장에 파견되는 것이다.

현재 고양시 노동안전지킴이는 총 4명이다. 이들의 일과는 오전 9시 전부터 시작된다. 하루에 방문해야 하는 현장은 4~5곳. 업무가 끝나는 오후 6시까지 최대한 많은 현장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동선을 계획하여 2인 1조로 움직인다.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사항은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복 착용이다. 턱 끈을 단단히 조여 매고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은 건설·제조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지난 3월 교육 및 현장 실습을 마치고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안전한 일터 만들기 앞장

작업에 한창이던 한 건설현장의 소장은 노동안전지킴이 고석재, 강동철 씨가 등장하자 반갑게 맞이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곳곳을 살피는 이들의 눈은 바쁘게 움직인다.

66

같은 현장을 총 3회 방문하여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사항, 안전재해 예방 조치 위반사항, 인력배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하여 현장 소장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99

노동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양시 노동안전지킴이는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한다.

노동안전지킴이들은 "우리가 다녀간 현장에서는 단 한 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고양시 노동안전지킴이들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왼쪽부터 고석재, 이진영, 심상용, 강동철